

거침없는 질주... 시속 100km 도달 9.6초

기아 '스포티지R' 시승기

기아차 광주공장의 자존심 스포티지 3세대가 나왔다. 모델명은 '스포티지R'. 지난 2004년 8월 출시한 뉴 스포티지에 이어 6년 만에 출시한 후속모델(프로젝트명 SL)이다. 2천400억원을 들여 3년7개월 연구개발 끝에 내놓은 광주공장의 야심작이다. 올해 첫 기아차 신차로 최고의 성능과 상품성으로 고객을 휘어잡을 기대작이다.

지난 2일 오전 10시30분 광주시 서구 내방동 광주공장 1공장 의전관 앞 일렉트로닉스 엘리베이터로 오렌지-빈티지 블루-시그널 레드-클리어 화이트 등 4종색의 스포티지R 10여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 중 빈티지 블루를 시승했다. 2톤 디젤 리미티드 최고급형으로 가격은 파노라마 선루프와 네비게이션 포함 2천945만원.

운전석에 앉았다. 시동을 걸기 위해 키박스를 찾으니 없다. 버튼만 누르면 시동이 걸린단다.

핸들링·코너링 안정감...디젤차 시동음도 없어 SUV·세단의 장점 살려 매력적... 연비도 우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컨트롤 패널인 센터페시아(center fascia)는 위쪽의 오디오 부분과 아래쪽 냉난방 조절 장치가 2층으로 분리돼 있다. 동급 최초로 적용된 7인치 모니터가 한눈에 들어왔다. USB에 담긴 동영상을 모니터로 재생할 수도 있다. 실내 장식은 검정색을 주로 사용해 편안함을 줬다.

콘솔박스에 스마트키를 올려놓고 버튼을 눌렀다. 시동이 걸렸다. 디젤차의 시끄러운 시동음과 진동은 없었다.

시승 코스는 광주~영광 법성포~고창 선운사~광주까지 총 150km. 광주~영광 30여 km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가속페달을 밟았다. 1단~3단 기어가 경쾌한 리듬으로 바뀌며 탄력 있게 차를 밀어주더니 4단부터 본격적으로 가속이 붙었다. 5단을 거쳐 6단까지도 부

드럽게 올라가며 속도는 어느새 시속 120km를 훌쩍 넘겼다. 제한속도가 80km이지만 가속페달을 밟았다. 순식간에 120→140→160→170km까지 올라갔다.

184마력 40토크를 내는 R엔진의 위력을 느낄 수 있었다. 시속 100km까지 걸리는 시간(제로백)은 불과 9.6초. 연비는 2톤구동 디젤 모델(자동변속기)로 리터당 15.6km.

유압식 핸들 대신 속도감응형 전동식 파워스티어링(MDPS)이 적용돼 핸들링이 부드러웠다. 저속 주행 때는 핸들을 가벼워지고, 고속에서는 묵직해지게 설계돼 재미와 안전감을 동시에 줬다. 진폭 감응형 댐퍼가 적용돼 딱딱하거나 출렁이지 않아 승차감이 상당히 부드럽고 안정적이다. 페달을 130km로 밟으니 차체가 약간 흔들거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



다. 디젤엔진이라 소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슬리지는 않았다.

핸들 아래 연비 액티브 에코 시스템(경제운전기능) 버튼을 누르자 출력이 낮아졌다. 공인 연비가 리터당 15.6km에 달하지만 이 버튼을 누르면 연료소모를 최대 6%까지 줄일 수 있다.

고창 선운사 주차장에서 핸들링과 코너링을 시험해봤다. 안정감이 돋보였다. SUV와 세단의 장점을 적절히 배합한 느낌이었다.

스포티지R 가격은 2톤 디젤이 1천990만~2천820만원, 4톤 디젤 2천170만~3천만원, 가솔린 1천855만~2천515만원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주간 증시 포커스

반도체 등 IT주 상승무드 외국인 순매수 지속될 듯

증시상승의 기대감이 한 달 전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특히 반도체 등 IT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은 한동안 상승기조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수급과 실적기대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 상승흐름은 이번 주에도 연장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적개선 기대감을 실질적으로 추가상승으로 연결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 또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그리스에 대한 IMF지원과정을 둘러싸고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달러화 강세 흐름이 다시 약세로 돌아서고 있는 움직임 또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신임 한국은행총재가 처음 주재하는 금융통화위원회(9일)가 예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 수출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경기회복세 속에서 당장에 금리인상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은 많지 않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출구전략 시점을 상당 기간 늦추고 있는 흐름과 더불어 당분간 금리변수의 부담은 수면 아래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펀더멘탈 및 수급변수에 있어서 이번 주 큰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코스피지수는 현재 주간 기준으로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투자심리 등 기술적 지표들의 과열 양상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최근 계속해서 지적받고 있는 극심한 양극화 장세는 쉽사리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주도주와 소외주 사이의 주가 격차가 과도하면 갭 메우기 차원의 소외주 상승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추세적인 흐름의 형성까지 바라보기는 쉽지 않겠다.

따라서 금주에도 기존 주도주 중심의 차별적 대응이라는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확산보다는 집중에 초점을 맞추는 압축된 대응을 권한다.



박종도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홈플러스 SSM 개시 일시정지”

광주시 권고...시민단체선 입점저지 결의대회

광주시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광주시는 4일 “지난 1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과 상무점에서 개점을 준비 중인 330㎡ 규모의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시가 SSM에 대해 사업 일시정지 권고를 한 것은 지난해 롯데슈퍼 수완점에 이어 두번째다.

시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서면서 인근 중소상인들이 타격을 입게 될 것 같아 권고를 내렸다”며 “권고가 개점에 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해당 업

체와 인근 중소상인들이 사전 자율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이하 광주네트워크)는 5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차평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개점 예정지에서 ‘대기업 SSM 입점 저지 시민결의대회’를 연다.

이들은 시민결의대회에 앞서 미리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대기업이 자율경쟁이라는 미명하에 자영업자들이 전통적으로 취급해왔던 품목까지 가리지 않고 빼앗으면서 전국의 지역상권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은미기자 emlee@



지난 1일 '2010 뉴욕 국제오토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된 기아자동차의 중형세단 신차 'K5'. (기아차 제공)

5월 출시 기아차 중형세단 'K5' 째주세요

기아자동차는 5일부터 중형세단 신차 'K5'의 사전계약 신청을 받는다.

기아차에 따르면 사전계약 고객 중 OK 캐시백 1만 포인트를 보유한 고객은 차량 출고 시 계약금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5월 초 출시되는 'K5'는 패밀리 룩 라디에이터 그릴을 적용한 대담한 앞모습, 속도감과 고급스러

오늘부터 사전계약

움이 느껴지는 옆모습, 강렬하고 세련된 뒷모습이 조화를 이뤄 절제되고 강인한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디자인을 완성했다. 강력한 동력성을 발휘하는 2.0 터보 GDI 엔진과 2.4 GDI 엔진에 6단 변속기를 장착했다.

넉넉한 실내 공간과 안정적이고

스포티한 스타일에 '바이오케어 온열시트', '온열 스티어링 휠', '송풍타입 앞좌석 통풍시트' 등 다양한 첨단 안전 및 편의장치를 적용해 출시 전부터 고객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기아차 영업소(1588-1100)로 하면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상업저축銀 ‘골든 브릿지’로 새출발

상업저축은행이 골든 브릿지 금융그룹과 CI통합으로 5일부터 사명을 ‘골든 브릿지 저축은행’으로 변경한다. 골든 브릿지(Golden Bridge)는 ‘고객을 위한 황금빛 다리’라는 뜻으로 고객의 자산증식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자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광주와 순천에 지점을 두고 있는

골든 브릿지 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 골든 브릿지 그룹에 인수돼 120억원을 증자하는 등 자산 건전성을 강화했다.

박준호 골든 브릿지 저축은행 대표이사는 “골든 브릿지 그룹의 일원으로 새 출발하는 것을 계기로 고객자산 관리에 총력을 쏟겠다”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새얼굴

지역친화·고객중심 마케팅 펼칠 것

고광후 롯데백화점 광주점장

“철저한 고객중심 마케팅과 지역친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지역민과 호흡하는 고급 백화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광후(48·이사대우) 신임 롯데백화점 광주점장은 “기업가치를 높이고 지역민들의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지역에 대형 유통업체의 잇따라 진출하고 있지만 차별화된 마케팅과 서비스로 지역 1위

백화점을 구성하고 고급백화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점장은 정을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졸업한 뒤 2006년 롯데백화점 해외명품 부문장으로 입사해 롯데백화점 대구 상인점장 역임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2010 호남예술제
 전통의 통합예술제전-권각대회 2010. 4. 28(수) ~ 5. 28(수)
 전통의 통합예술제전-권각대회 2010. 4. 28(수) ~ 5. 28(수)
 전통의 통합예술제전-권각대회 2010. 4. 28(수) ~ 5. 28(수)